

中고소인이 동방신기에 보낸 '사기피해관련배상 요청서' 공개돼

입력 2009. 11. 20. 12:59 · 수정 2009. 11. 20. 14:37

사기건에 관한 배상 청구서

존경하는 "동방신기"음악그룹 성원에게
Mr 김재중, Mr 김준수, Mr 박유천에게

한국 WE# PLUS CO.,LTD 회사, 루이즈리(베이징)화장품유한회사, 베이징루이즈리상무유
한회사와 [redacted] 대표에게

이상 세분은 "동방신기"음악그룹 성원의 명의로 루이즈리(베이징) 화장품유한회사 및 베이징루이즈리상무유한회사와 함께 저의회사에 대한 사기 사건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전을 보낸다.

2009 년 01 월 06 일, 베이징태양궁쌔니미얼국제아동성 5 층태산문원상점에서 세분은 루이즈리 (베이징)화장품유한회사(이하 루이즈리회사 라고 칭함)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체 및 관련 투자 예상인 각계 인사들에게 [redacted] 브랜드 화장품을 소개하였으며 또 시리즈의 자금유지 활동에도 참석하였다. 이상 세분의 영향력 원인으로 현장에는 팬들이 아주 많았으며 대성황리를 이루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관련 대체보도 참조, 사진으로 증명)

2009 년 5 월 6 일, 루이즈리회사는 저의회사에 소개하기를 "동방신기" 음악그룹이 이미 [redacted] 브랜드 제품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세분이 본사에 가맹한 동시에 주주(이사)로 인명되었으며 또 초기 대규모의 홍보활동이 전개될것이라고 하였다. "동방신기"세분은 중국에서 팬들의 지지역량, 그리고 강력한 호소력, 게다가 세분이 실제로 자금유지 활동에까지 참여한 현실과 루이즈리회사의 명확한 승낙하에 저의회사는 루이즈리회사와 <합작의향서>(부건 참조)를 체결하였다

2009 년 6 월 8 일, [redacted] 의 본사 즉 한국 WE# PLUS CO.,LTD 회사는 본주장에 정식 서명하여 루이즈리회사와 공동체임 남보의 보증 (부건 <보증서> 참조)에 동의하였다. 그다음 저의회사는 지급 근 30 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창소열대, 인테리어 직원초빙 등 대리판매의 준비사항을 완성하였다. (계회서와 관련 영수증을 증거로 함.)

2009 년 6 월분부터 세분과 루이즈리회사는 새로 베이징루이즈리상무 유한회사(합자회사)를 등록창설하였다. 그후 본사와 루이즈리회사는 베이징 조양구 광화로 22 호 SOHO 5 호 3 단원 610 실에서 합치어 사무를 보게 되었으며 공동으로 "루이즈리"명의로 본사와 연계하여 합작사항을 처리하였다. 하여 저의는 동방신기가 확실히 [redacted] 브랜드 제품에 가맹하고 또 홍보대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2009 년 6 월 26 일, 시리즈의 준비작업이후, 저의회사와 루이즈리회사는 정식으로 대리계약을 체결하여 [redacted] 브랜드제품의 상하이, 심서, 강소 3 개지역의 총대리로 임명받았으며 또 즉시 70 만원 현금을 지불하여 루이즈리에서 제품을 입하(영수증 증거 있음)하여 대리판매를 시작하였다.

2009 년 6 월 22 일, 루이즈리회사의 승낙, 배치에 따라 세분은 루이즈리회사이사의 신분으로 2009 년 7 월 16 일 상하이 [redacted] 브랜드 상하이뉴스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며 팬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는 되므로 저의회사에 전기홍보 및 제품의 세트예약을 하라고 하였다. (<활동위임 설명서>참조). 하여 저의회사는 또 20 여만원의 홍보비용을 지불하였다.

2009 년 7 월 8 일, 루이즈리회사(베이징루이즈리상무유한회사)는 "일정배치"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원인으로 본사를 통해 세분이사가 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며 또 이번 상하이기자회견의 모든 손실은 전부 [redacted] 본사에서 배상하고 세분의 한국 이사 가족이 상하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하였다. (2009 년 7 월 8 일<상하이 기자회견 상황의 설명>을 참조)

[스포츠조선 T—뉴스 이정혁 기자] 동방신기 3인(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중국에서 사기혐의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그에 앞서 고소인이 멤버들에게 발송한 '사기피해관련배상 요청서'가 공개됐다.

일종의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이 요청서는 지난 10월 22일 소송을 제기한 예자려의 상하이 강쑤 산시 등의 총판을 맞고 있는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가 동방신기 3인과 예자려에게 발송한 것이다. 예자려는 동방신기 3인과 국내 화장품 C사의 중국 합작회사다.

이 문서에는 지난 1월 6일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말미에는 동방신기 3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부정적인 면을 피하기 위해 11월 7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기한내 답변이 오지 않았고 베이징에 위치한 예자려 사무실이 철거돼 결국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CTV, 차이나 데일리, 소후닷컴 등 중국 언론들은 동방신기 3인의 사기혐의 피소를 일제히 보도했다.

< jjangga@sportschosun.com >

2009년 7월 14일, 16일, 세분의 가족은 세분을 대표하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세분이 활동에 출석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하였다.

2009년 7월 11일, "동방신기"의 베이징콘서트가 결속된후, 루이즈리 회사의 대표(법인대표)는 강오우센터스위스호텔에서 대리상 회의를 열었으며 Mr 김준수, Mr 박유철은 저의에게 사과를 하였다. (관련 녹화영상증거 있음)

2009년 7월중순, 본사는 베이징중문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변호사의 <업무요청서>(부건 참조)를 받았다. 화장품의 그 위탁인 한국 SM 하속회사의 연예인 동방신기 성원의 권리침해 혐의를 집행하였으며 저의 회사에서 협조하여 관련 증거를 제공해줄것을 청구하였다. 그 당시 저의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상업비밀"을 누설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답변서를 보냈다.(부건 <업무요청서>의 답변 참조)

2009년 07월 24일, 저의 회사는 루이즈리회사(세분 포함)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여부 우려로 루이즈리회사에 <업무 요청서>에 관한 확인의뢰서(부건 참조)를 발송하여 루이즈리회사에 사실에 대한 답복을 요구하였고 저의회사에 손실을 조성하지 않기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세분 및 루이즈리회사는 답복을 주지 않았다.

세분이 홍보대사이고 또 활동에 출석한다는 정보를 발표후, 여러번 결석원인으로 팬들의 질의, 좋지 않은 평가, 그리고 관련 매스미디어도 부정적인 면을 발표하였다. 또 범람 분경이 언급되기에 화장품은 정상적인 판매를 진행할수 없게 되어 저의회사에 거대한 경제손실을 조성해 주었다. 하여 현재까지 저의회사의 직접적인 손실은 이미 120 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요즘, 저의가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루이즈리회사 및 관련회사의 각 주주들은 경영을 중지하여 이로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하여 저의는 이에 상업사기가 존재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저의가 장악한 증거와 사실에서 세분과 루이즈리회사는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으며 바로 세분의 사기행위때문에 저의회사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저의회사가 본 브랜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세분은 회피할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세분은 그를 및 개인의 명의로 저의의 기명을 승인하였으며 그후에는 또 정상적인 홍보대사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과만 하였다. 동시에 세분은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소송당했다. 세분의 행동과 저의 회사의 손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하여 특히 세분에게 서신을 보내어 세분이 저의회사에 입힌 손실에 대해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머지 전부 제품은 회수). 아니한 경우에 저의회사는 법적으로 세분과 루이즈리 및 관련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또 기간 모든 사실을 공표하려 한다.

세분의 명예를 보호하고 부정적인 면을 피면하기 위해 이상 법적 책임을 추궁전, 특히 이 서신을 보내오니 09년 11월 07일전으로 명확한 답복을 바라며 기한이 지나면 결과는 자체로 책임지길 바란다.

이상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베이징구신세기문화산업유한회사
(도장):

2009년 10월 22일

고건 2009. 11. 19.

1/11/19

< scnewsrank > ▲ 김다울 소속사, "자살로 몰지 말길" 장례식 위해 출국 ▲ [단독] 송병준-이 승민, 내년 1월 3일 전격 결혼

▲ 엄친딸 이인혜, 여신 포스 물씬

▲ 남상미, "키 큰 남자는 내 이상형 아네요"

▲ 아이리스 NSS 비밀 조직 맞나?

[[👉 웹신문 보러가기](#)] [[👉 스포츠조선 구독](#)]- Copyrights ©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